

기독교적 경제 원리 소고

—크리스챤의 건전한 경제관 형성을 위한 제언—

최 병 규
(교회문제연구소 간사)

서 론

T. S. Eliot는 그의 책 *The Idea of a Christian Society*에서 “인간은 모든 사회에서 영적인 제도들과 정치적인 제도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경제적 활동들에 의하여 살아왔다”고 하는 전제에 동의하기도 했는데,²⁾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라고 할 때에 그 자체에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1) Douglas Vickers, *Economics and Man* (The Craig Press, 1976), p. 57.

Kenneth E. Boulding은 말하기를,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리가 없는 경제학은 지점(支點) 없는 지렛대라고 하면서 윤리적－경제적 (ethico-economic)인 면의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³⁾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경제원리를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현대의 배금주의(mammon) 사상의 조류 속에서 크리스챤으로서의 경제관에 입각하여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직 수행에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요즈음 재산 증식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투기의 봄과 잘못된 형태로서의 투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건전한 노동의 댓가가 아닌 투기로 인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기독교 경제원리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본고에서 경제에 대하여 비기독교적인 견해를 논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사회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해답이나 종합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표준과 원리들을 제시할 뿐이라는 Munby의 말에 수긍하면서,⁴⁾ 기독교적인 경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크리스챤의 바람직한 경제관이 어떠해야 할지를 논급해 보려 한다.

본 론

1. 기독교 경제의 출발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D. L. Munby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과 죄인으로서의 인간(God the Creator and Man the Sinner)의 관계로 묘사했으며,⁴⁾ Douglas Vickers도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이며,

2) Kenneth E. Boulding, *Principles of Economic Polic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1958), p. vi

3) D. L. Munby, *God and the Rich Society, A Study of Christian in a World of Abundance* (London : Oxford Univ. Press, 1961), p. 8.

기독교인들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의 일부분으로서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서,⁴⁾ 계속해서 말하기를, 죄와 타락으로 사회는 타락했고 배교적이며, 구조적으로 이교도적인 것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보존해 가시며, 그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문화적 과학적 경제적 발전을 계속해서 명하신다고 하며, 그러므로 크리스챤들은 하나님이 명해 두신 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하고 중거하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는 인간의 문화적 경제적 의무를 창세기 1:26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영역의 실체를 “정복하고…다스리는” 창조 명령과 동일시하고 있다.⁵⁾

이와 유사하게 J. F. Sleeman도 역시 우주의 본질과 인간행동의 목적에 관한 모든 기독교적 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의도하신다고 하면서, 이 경제적 질서(economic order) 또한 창조의 다른 부분들처럼 “타락”에 참여한다고 했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들처럼 그것들 역시 죄에 의해 가치가 저하되었으며, 자기추구와 불의 그리고 좌취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기독교 경제의 출발점을 논함에 있어서 인간의 죄와 타락과 관련시키고 있는데,⁶⁾ 그것은 정당한 견해라고 보아진다. 이와 아울러 Douglas Vickers도 죄의 사실과 진급성이 진정 경제적 문제의 중심부에 놓여 있음을 간파하지 않았으며,⁷⁾ Edward J. Tanis는 경제생활의 윤리적 양상에 대한 칼빈주의적인 강조점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직과 책임,

4) D. L. Munby, *Christianity and Economic Problems* (London : Macmillan, 1956), pp. 4-6.

5) Douglas Vickers, *op. cit.*, pp. 44, 45.

6) *Ibid.*

7) John F. Sleeman, *Basic Economic Problems* (London : SCM, 1953), pp. 15, 16.

8) Douglas Vickers, *op. cit.*, p. 42.

그리고 그의 이웃 특히 사회의 더욱 악한 회원들에게 대한 의무에 있다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한 바 있다.⁹⁾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에는 Abraham Kuyper의 두 종류의 인간, 즉 언약의 수호자(covenant-keepers)인 중생자와 언약의 파기자(covenant breakers)인 비중생자 사이의 긴장이 있음을 논하게 되었는데,¹⁰⁾ Van Til 역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즉 중생자와 비중생자 사이에는 인식론적으로 볼 때에 공통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 기본적인 상이성(basic differentiae)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들을¹¹⁾ 볼 때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상이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기독교적인 표준과 원리 위에 기독교 경제학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물질에 대한 기독교적 메시지

1) 물질의 성격

영지주의의 주된 교리 중에는 물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며, 일어나는 모든 악은 그것으로부터 근거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것들은 창조하신 후의 상태가 좋았다고 하신 것이다. 물론 타락 이후의 인간 내의 하나님의 형상 및 모양, 자연의 부패 등의 무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왔지만, 그러나 물질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John R. Richardson은 성경에서

9) Edward J. Tanis, AM., *Calvinism and Social Problems* (Zondervan, n.d.), p. 41.

10)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Eerdmans, 1963), pp. 150 ff.

11) Cornelius Van Til, *Common Grace*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54), p. 5.

말하는 창조교리를 함축적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이시며 피조 세계는 그의 손으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것과, 둘째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n ex nihilo), 즉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셋째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4:11에서와 같이 목적을 위하여 물질이 존재하게 하셨다고 한 바 있다.¹²⁾

그러므로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본다.

2) 토지에 대한 문제

물질의 문제를 취급하면서 우리는 토지의 문제를 간과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은 땅 그 자체까지도 인간의 것인 양 매매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커뮤니스트들처럼 토지에 대한 인간의 개인적인 소유권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가?

시편의 기자는 고백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 24:1). 성경은 이렇게 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연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 스스로가 땅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인간사회는 어쩔 수 없이 더욱더 큰 불안이 조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토지”에 대한 개념의 성경적인 올바른 견해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 같은 이론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출발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의 유익을 서로 보장

12) John R. Richardson, *Christian Economics, The Christian Message to the Market Place* (Houston, Texas : St. Thomas Press, 1966), pp. 1-3.

해 주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한 이론을 모색해 내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노력에는 제한성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토지에 대한 개념은 더욱더 포괄적이며, 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사실, 구약에 있어서의 토지에 대한 정신은 희년제도(Jubilee Year)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근본 정신은 그 토지가 인간의 것이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희년이 되면 그들의 본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되었다.

사실상 이러한 토대 위에서 토지에 대한 불균등한 세금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Henry George가 제안하게 된 것이 토지 단일세(Single Tax)인데, 그것은 토지의 가치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의 철폐를 말한다. 그에 의하면, 토지를 균일한 크기로 분할하지 않고서도 만인의 평등한 권리를 확보할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에 대한 각 개인의 노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인구 증가 및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결과(예를 들어, 도로 건설, 급수, 전력 공급 등)로서 토지에 부가되는 가치를 사회 전체를 위해 쓰여질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방법이다. 이것은 토지 가치세(Land Value Taxation) 혹은 대지 가치세(Site Value Taxation)로 불리기도 한다. Reuben Archer Torrey도 Henry George의 견해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알라바마 주의 경주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다.¹³⁾ 물론 위의 두 사람의 견해가 절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기독교적 견해일 수 있는 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교적 바람직한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식있는 기독교 학자들의 더 깊은 연구가 기대되는 것이다.

13) 대천덕, 우리와 하나님(예수원, 1989), pp. 311-331.

3. 노동(일)에 대한 기독교적 인식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와 물질 등을 사용해서 생산활동을 하게 되는 “노동”이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물론 노동의 개념에 있어서, 그것이 범죄하기 전의 축복된 개념으로서인지 아니면 범죄 타락 후의 저주의 결과로서인지에 대한 견해에는 약간의 다양성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노동 그 자체는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해석되어질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2:15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그 안에 두셨다고 했다(참고, 창 3:17-19; 잠 6:6; 살후 3:10). 아울러 성경은 노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목적있는 활동이지 하나님의 필요 악이 아니라고 지적한 John R. Richardson의 견해에 수긍이 가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지명된 어떤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수표-체크를 안전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라기보다는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어져야 한다고 했다.¹⁴⁾ 그는 노동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그것은 전도서 9:10, 골로새서 3:20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다하여 혹은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며, 둘째로 예의 있고 우호적으로, 셋째 눈속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해야 될 것과, 넷째 기도하면서, 끝으로 Carlyle의 “일할 때에 노래하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행복하게 일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¹⁵⁾

한편, 노동이란 하나님의 일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도 할 수

14) John R. Richardson, *op. cit.*, p. 26.

15) *Ibid.*, p. 27.

있다. Andre Biéler는 Calvin의 경제윤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는 하나님의 질서있는 행위 안에서 인간을 재구성하게 될 때에 인간의 노동이 다시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며 동시에 인간은 이웃과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재발견하게 된다고 했는데 대단히 수긍이 가는 견해로 보여지는데,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안에서 회복되고 재통합된 노동은 악용되지 않으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성화될 때에는 노동이란 가장 뛰어난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다고 했다.¹⁶⁾ 신성하고도 고상한 노동의 이러한 본질을 프로테스탄트들은 잘 파악했던 것 같다. Max Weber의 경우 프로테스탄트는 그 이전의 무역 시스템에 비하여 보다 역동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한 배경을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소명(Calling)”에 대한 개념에서 찾고 있는데, 이 점은 로마 가톨릭 측의 사람들이나 고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라고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경제의 우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¹⁷⁾

4. 크리스챤과 부의 추구(축적)

1) 크리스챤과 돈

인간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생존하게 될 때에 자연스레 생겨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교환가치로서의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돈 그 자체를 역시 선악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크리스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계(Mitwelt), 즉 같은 사회 공동체 내지는 국가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한, 돈이라는 것은 교환가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16) Andre Bié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칼빈의 경제윤리(서울: 성광문화사, 1985), p. 80.

17) H. F. R. Catherwood, *The Christian In Industrial Society*(London : The Tyndale Press, 1966), pp. 14, 15.

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크리스챤은 그 돈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dre Bieler의 말과 같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한 인간은, 다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곧 인간이 돈의 역할에 대해 새롭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인데, 돈은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므로, 돈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고 이웃을 위해 사용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돈을 정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¹⁸⁾ 그러한 그의 견해는 참으로 전전한 것 같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주 예수께서 돈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John R. Richardson 이 이 문제를 잘 설명했는데, 먼저 그리스도에 의하면 돈의 가치는 이 선물들을 축진하는 동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카운트 되는 것이란 우리가 무엇을 주는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주는가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최고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청지기직에 있어서 진리로 고수되어져 온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돈을 위험한 것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져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음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맘몬(mammon : 이것은 부 혹은 풍부함을 나타내는 아람어적인 표현임)이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 영혼을 향한 그것의 위험한 가능성들에 대하여 주의를 주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정죄하시지는 않으셨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만약 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27장 등에서와 같이 부유한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자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돈이 천국의 보물로 번역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고 한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이 제한된 시간에 물질적인 통제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음을 지적해 내었는데,¹⁹⁾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2) 크리스챤과 부의 축적(증식)의 문제

상당수의 크리스챤은 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때로는 겸허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낭비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를 축구하는 점에 있어 크게 두 유형이 있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보헤미안들과 같이 개인 소유(재산)를 죄로 간주한 것인데 Zwingli나 Gerrard Winstanly 등은 그것을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았던 반면, 또 다른 부류는 그것을 가능한 한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의무처럼 간주하거나 혹은 부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로 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Redmond Mullin은 지적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의 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 교훈들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획득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부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H. F. R. Catherwood는 잘 설명했는데,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신구약 어느 곳에서나 물질적 소유 그 자체를 언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응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임을 언급했는데,²¹⁾ 이처럼 크리스챤은 물질적 소유의 다소

19) John R. Richardson, *op. cit.*, pp. 40, 41.

20) Redmond Mullin, *The Wealth of Christians* (Maryknoll, N. Y. : Orbis Books, 1984), pp. 82-85.

21) H. F. R. Catherwood, *op. cit.*, p. 9.

의 문제가 아닌, 즉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① 증권, 부동산 등의 문제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증권과 부동산 등의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 내에서의 경제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의 생활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경제에 대한 전전한 일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 부 그 자체를 추구하다가 전전한 개념을 상실하게 되고, 전전한 투자가 아닌 투기의 성향으로 내리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전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을 내리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크리스찬들은 증권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투자의 진정하고 전전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한 생각이 편협된 생각임을 알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오히려 Edward J. Tanis가 말한 바, 단지 돈으로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업을 위한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²²⁾ 크리스챤도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그것이 투자가 아닌 투기의 경향을 띠게 될 경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의식있는 크리스챤으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 기업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혹은 그 기업이 전전한 양심으로 이윤을 취하고 생산의 결과를 재분배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를 파악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이상적이겠다. 그러나, 투자하면서도 혹은 투자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께서 그의 일과 사람들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바에 사용하면서 혹은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건전한 정신으로 참여한다면 그 이상 좋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투기하는 문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사회의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조장할 수 있다. 요사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토지는 국민의 것도 그렇다고 국가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관리할 뿐이지 인간이 사고 팔며, 나아가서는 거기에 투기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② 이자에 관한 문제

인류가 생겨난 아래로 빌려 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문제가 존재해 왔다. Max Weber는 돈을 빌려 주는 자들이 바벨론이나 헬라, 인도나 중국 그리고 로마 등지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²³⁾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특히 중세기의 교회들은 그러한 것을 정죄시켰으며, “너는 도덕질 하지 말라”고 하는 제 8 계명에 위배되는 죄로 여겨졌다. 중세 교회의 Thomas Aquinas는 헬라 철학자 Aristotle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취했으며, 역시 돈에 대한 이자를 취하는 것을 정죄시켰다. 그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Aristotle의 경우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교환의 수단(a medium of exchange)으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고 보았으며, 그에게는 그것만이 돈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이었으며, Thomas도 이 견해를 따랐던 것이다.²⁴⁾

그리고 Luther와 Calvin의 시대에 내려와서도 교회는 공적으로 이자를 정죄하기를 계속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도덕론자들 쪽으로 여전히 기울어 있었던 반면에 칼빈은 독자적인 위치를 취했다. 그는 곤궁에 처한

23)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Charles Scribner's Sons, 1985), p. 20.

24) Edward J. Tanis, *op. cit.*, p. 17.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문제와 가정 혹은 국외 무역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빌려주는 문제를 구분지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말했다.²⁵⁾ 그렇지만 칼빈은 이자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많은 제약을 가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감동받아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규범 설정을 거부했던 것이다.²⁶⁾ 한편, Richard Baxter의 경우에 그의 유명한 *Christian Directory*에서 만약 그것이 정의와 자애의 정신에 상충된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모든 이자는 죄악된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²⁷⁾

이상에서 볼 때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빌려주는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건전하게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취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서서 가난한 이들로부터 이자를 취하는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사랑의 정신에 서서 그들을 구제하는 선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게 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가난한 형제들과 크리스챤(혹은 교회)

기독교적인 경제원리에 접근해 봄에 있어서 우리는 가난한 형제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한때 Max Weber는 말하기를, 칼빈주의의 강조점은 그의 신자들이 단 하나의 선행(good work)이 아니라, 선행의 생애가 통일된 체계 속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²⁸⁾ 과연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이들—아니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이 아닌 형제들인—을

25) *Ibid.*, p. 18.

26) Andre Bieler, *op. cit.*, p. 102.

27) Edward J. Tanis, *op. cit.*, p. 35.

28) Max Weber, *op. cit.*, p. 117.

제 5 부

연구 논문